

인천교육
연구브리프

2025. Vol. 2

변화하는 교실, 달라지는
학교: 인천 학생 수 예측에
따른 학교 다양화 방향 탐색¹⁾

문영진 (교육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)



도입 Introduction



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심화, 교실과 학교가 달라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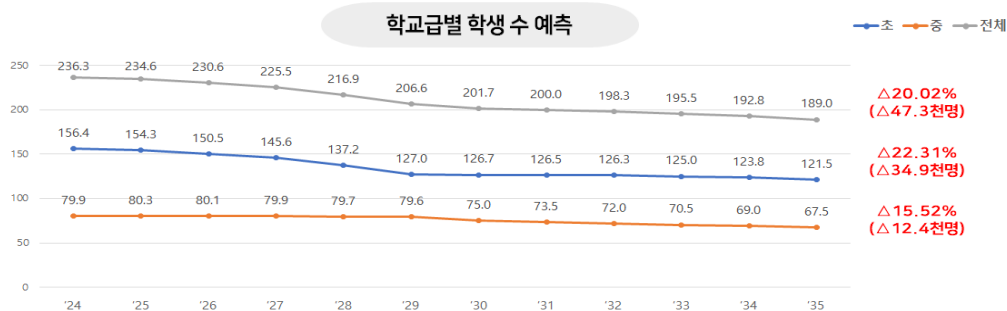
- 2024년 인천은 전국에서 초등학생 순유입(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값)이 가장 많은 지역(662명)으로,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설교 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. 그러나 전국 최고 순유입에도 불구하고, 전년 대비 인천 초등학생 수는 1,104명 감소하였다.²⁾
- 인천광역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, 2020년 44만 명 수준이던 인천 학령인구(6~21세)는 2040년까지 약 19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³⁾된다. 또한 인천은 원도심·신도시·섬 지역 간 학생 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. 이에 따라,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논의와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병존하는 가운데, 인천교육은 단순한 학교 수 조정을 넘어 학교 다양화와 재구조화를 요구하는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.
- 본 연구는 향후 10년간의 인천 학생 수를 예측하고,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다양화 방향을 탐색함으로써 학교 체제의 질적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.

연구 내용 Contents



10년을 내다보는 인천 학생 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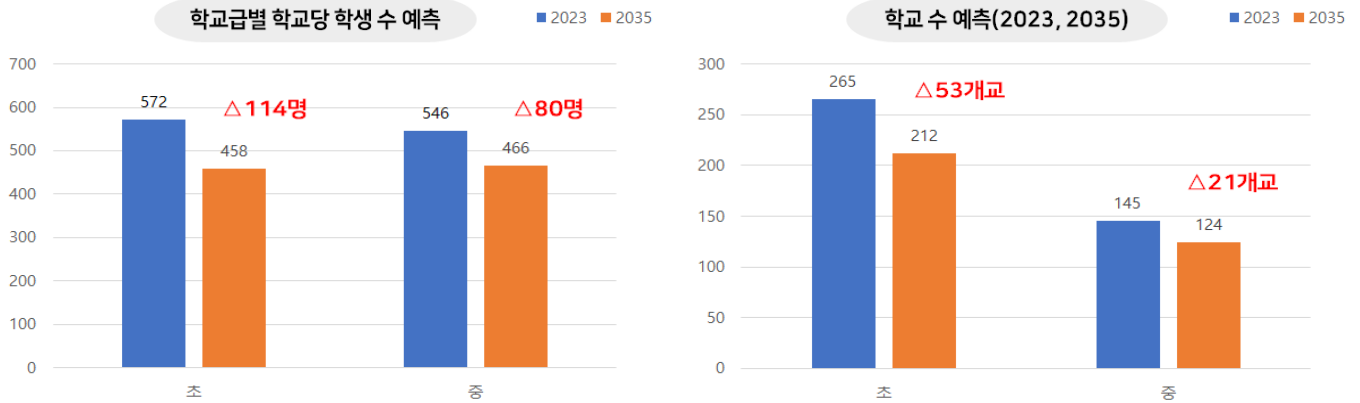
- 최근 10년간(2014년~2023년)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(2024년~2035년) 인천 초·중학생 수를 예측⁴⁾하였다. 예측 분석 결과, 인천 초·중학생 수는 2024년 대비 2035년까지 약 4만 7천 명(△20.0%)이 감소할 전망이며, 초등학생 수는 △22.3%, 중학생 수는 △15.5%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.



[그림 1] 인천 학교급별 학생 수 예측(2024~2035)

- 1) 본고는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의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 「인천 학생 수 추이 변화에 따른 학교 다양화 방안 연구」(문영진 외)의 일부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(QR코드로 본 연구결과보고서 열람 가능)
- 2) 윤성문(2025.06.16.). 지난해 초등학생 순유입 연구 전국 5위... 명문 학군지 쏠림 여전. 인천in, <https://www.incheon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0314> 에서 6월 23일 검색.
- 3) 인천광역시(2022.12.).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 추계.
- 4) 학생 수 예측에는 지수평형 모형이 활용되었으며, 평균 결정계수(R^2)는 초등학교 약 95%, 중학교 약 80% 수준으로 타당성이 확인됨.

- 2025년 기준 학교 수(초: 265개교, 중: 145개교, 분교 제외)를 바탕으로 2035년 학교당 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, 초등학교는 458명, 중학교는 466명으로 추정된다. 이는 2023년(초 572명, 중 546명) 대비 각각 114명, 80명 정도 감소한 수치다.
- 한편, 2023년 학교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35년 학교 수를 예측하면, 초등학교 약 53개교, 중학교 약 21개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시급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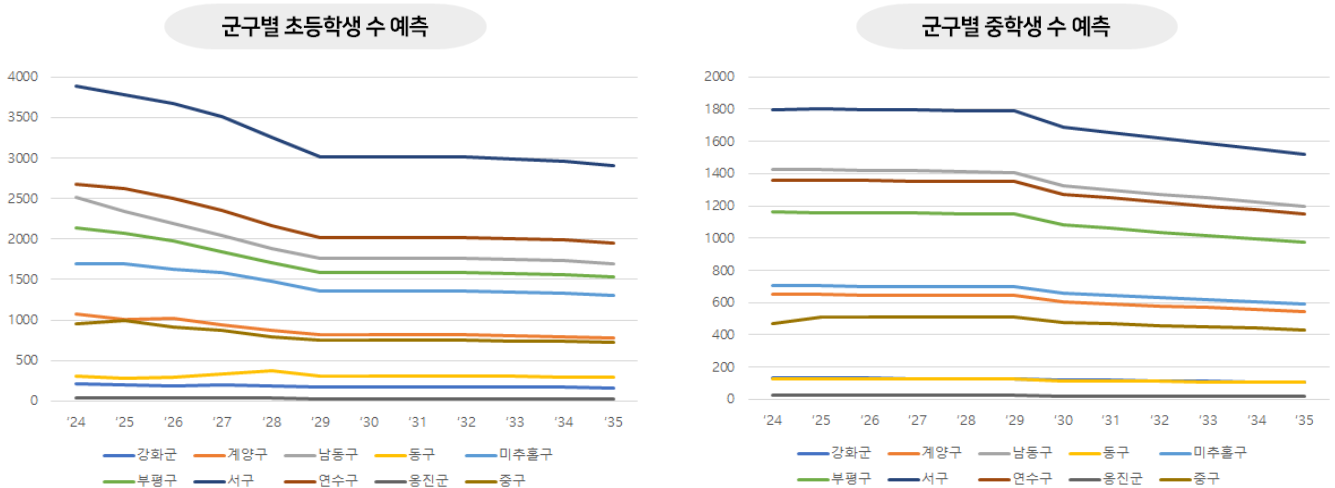


■ [그림 2] 인천 학교급별 학교당 학생 수 및 학교 수 예측(2023, 2035)

- 인천 군구별 학생 수 예측 결과, 동구(△7.2%)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감소율이 20% 내외로 나타났다.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옹진군(△27.9%)이었다. 초등학교는 남동구, 부평구, 계양구 순, 중학교는 옹진군, 강화군, 계양구·남동구·부평구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.

■ <표 1> 인천 군구별 학생 수 예측(2024년~2035년, 단위: 천명)

구분	'24	'25	'26	'27	'28	'29	'30	'31	'32	'33	'34	'25	변화율(%)
강화군	3.42	3.31	3.18	3.26	3.20	2.98	2.90	2.87	2.84	2.80	2.75	2.70	△21.3
계양구	17.28	16.62	16.71	15.92	15.15	14.55	14.18	14.06	13.93	13.74	13.54	13.28	△23.2
남동구	39.47	37.61	36.08	34.58	32.90	31.67	30.86	30.59	30.32	29.91	29.49	28.92	△26.7
동구	4.30	4.06	4.25	4.53	4.98	4.29	4.22	4.20	4.18	4.12	4.07	4.00	△7.2
미추홀구	23.95	23.98	23.32	22.83	21.73	20.56	20.16	20.04	19.90	19.66	19.41	19.05	△20.5
부평구	33.06	32.34	31.28	29.98	28.55	27.37	26.71	26.49	26.27	25.92	25.56	25.07	△24.2
서구	56.83	55.84	54.78	53.04	50.51	48.03	47.01	46.68	46.34	45.75	45.15	44.30	△22.1
연수구	40.33	39.87	38.63	37.12	35.17	33.73	32.96	32.71	32.46	32.04	31.61	31.01	△23.1
옹진군	0.66	0.65	0.63	0.61	0.58	0.55	0.53	0.52	0.51	0.50	0.49	0.48	△27.9
중구	14.30	15.13	14.22	13.91	13.06	12.56	12.27	12.17	12.08	11.92	11.75	11.53	△19.4



■ [그림 3] 인천 군구별 초·중학생 수 예측(2024~2035)

인천 학생 수 추이를 바탕으로 한 학교 다양화의 세 가지 방향

- 인천의 학생 수는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, 지역별 양상은 상이하다. 이에 따라 학교 다양화 역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.
- 인천 군구별 초·중학생 수 예측을 바탕으로 한 학교 다양화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.
 - 1) 도서지역 내 학생 수 감소(강화군, 옹진군, 중구 영종 이외 지역)에 따른 **소규모학교 활성화**,
 - 2) 도시지역 내 학생 수 감소(계양구, 부평구, 남동구 등)에 따른 **학교 소규모화 대응**,
 - 3) 도시지역 내 학생 수 증감(연수구, 서구, 중구 영종)에 따른 **소규모학교-과대과밀학교 간 균형 조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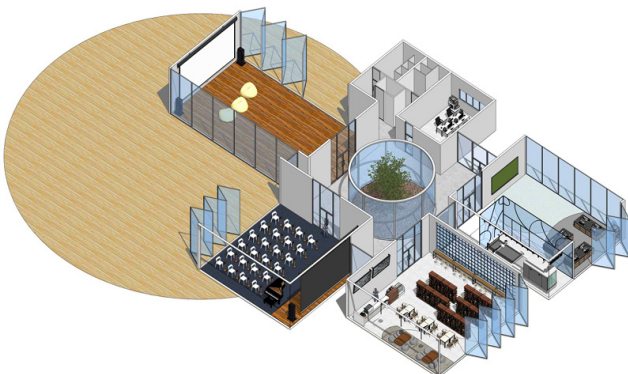
〈표 2〉 인천 학교 다양화 방안(안)

유형 및 대상 지역	방향	학교 다양화 방안(안)
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(강화군, 옹진군 등)	지역(마을) 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학교시설복합화 ● 유휴학교의 다양한 운영 ● 지역 산업 연계 교육과정 특화
	교육과정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역 밖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● 진로 중심 무학년제(소규모학급) 운영 ● 소규모학교 클러스터 조직 및 특화교육 개발·공유
도시지역 학교 소규모화 대응 (계양구, 부평구, 남동구 등)	교육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학교시설복합화 ● 지역 내 기업 연계 교육환경 개선 ●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대응
	교육과정 혁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지역 산업 연계 교육과정 특화 ● 진로 중심 무학년제(소규모학급) 운영 ● 통합운영학교 및 유·초·중·고 연계 캠퍼스형 종합학교 ● 학교별 교육과정 특화 및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
소규모학교- 과대과밀학교 간 균형 (연수구, 서구, 중구 등)	학교 재구조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도시형 분교 ● 1교 2캠퍼스형 ● 소규모학교-과대과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
	교육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학교시설복합화 ● 지역 내 기업 연계 교육환경 개선 ●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한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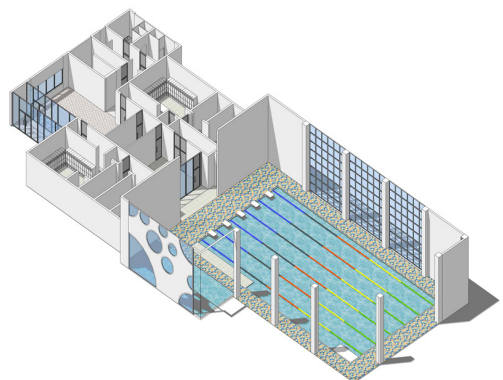
*고려사항: 설립·운영 규정(법), 학생 배치·선발, 교육과정 및 교직원 인사, 예산 확보, 업무 지원 체제 등

● 첫째,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는 지역(마을) 연계와 교육과정(내용과 방법) 혁신이다.

- 강화군, 옹진군, 중구의 비영종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은 지리적 고립이 크므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,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. 또한, 학교를 교육문화복합시설(그림 4)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.
- 소규모학교의 정체성과 교육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. 소규모학교 클러스터 조직 및 특화교육 개발·공유(그림 5), 진로 중심 무학년제(소규모학급) 구성·운영, 도시지역 내 교육적 인프라를 갖춘 학교와 결연을 통한 (온라인) 공동교육과정 운영 강화, 기숙형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.



■ [그림 4]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복합화: Edu Platform (예시)



■ [그림 5] 도서지역 소규모학교 스포츠 클러스터: Edu-Cluster (예시)

● 둘째,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대응의 핵심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(내용과 방법) 혁신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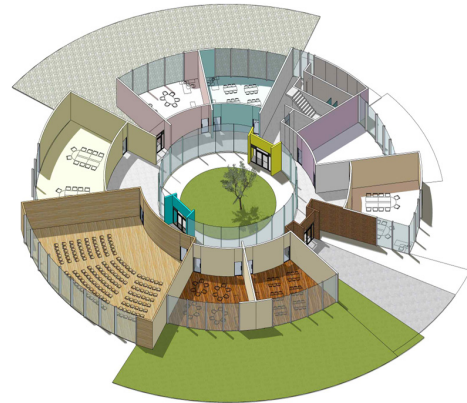
- 계양구, 부평구, 남동구 등 원도심의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화가 진행 중이다. 학교 통폐합이나 통합운영학교(그림 6) 등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향이 검토될 수 있지만, 통학 여건 등의 사유로 존치가 필요한 학교는 인근 소규모학교들과의 연계·교류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
- 또한 원도심 소재 학교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복합화,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.

● 셋째, 소규모학교와 과대과밀학교 간 균형의 핵심은 학교 재구조화와 교육환경 개선이다.

- 연수구, 서구, 중구 영종지역 등은 신도시 인구 유입과 원도심 학생 수 감소가 공존하는 지역으로, 과대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가 혼재하는 복합적 상황이므로 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구조화 전략(도시형 분교, 1교 2캠퍼스 등)이 필요하다.
- 또한 신도시 지역과 대조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원도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(그림 7)을 위한 방안(학교시설복합화, 지역 기업 연계 교육환경 개선 등)도 마련해야 한다.



■ [그림 6]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통합: Edu Linkage (예시)



■ [그림 7] 도시지역 소규모학교 공간재구조화: Edu Global Center (예시)

결론 Conclusion

- 본고는 향후 10년간 인천 학생 수 예측을 바탕으로 학교 다양화 방향을 제안하였다. 학령인구와 관련하여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은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이다. 원도심 재생, 신도시 개발,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별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, 여전히 충분한 교육적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.
-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현실이며, 이제는 이를 학교교육 혁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.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시의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,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.

인천교육 연구브리프는 정책연구 결과 및 정책 동향을 교육공동체와 공유하는 교육정책연구소 발간자료입니다.

**인천교육
연구브리프**

2025. Vol. 2

발행일 2025. 6. 30.

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

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(발간등록번호: 인천교육-2025-0190)

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

문의처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정책연구소, TEL 032.420.8206
https://ice.go.kr - 교육 - 교직원 지원 - 교육정책연구소